

김규성·홍종표, KIA 내야 전쟁에 기름 붓는다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내야전쟁에 김규성과 홍종표가 기름을 붓는다.

KIA 내야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다. 김종국 감독이 키플레이어로 지목한 김도영이 연습경기에서 뜨거운 방망이를 보여주면서 어필하고 있고, '이적생' 변우혁은 파워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석환도 외야와 내야를 모두 준비하면서 경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황. 여기에 김규성과 홍종표도 쉽지는 않기로 내야를 격전지로 만들고 있다.

김규성은 지난 겨울 질풍 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호주리그에서 경험을 쌓았다. 휴식 없이 다시 시즌 준비를 하고 있지만 김규성은 피곤함 보다는 기대감을 말한다.

김규성은 "시즌이 길긴 했어도 막상 캠프에 오니까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다"며 "호주리그에 괜찮은 투수도 많았고, 왼손 사이드암 같이 처음 보는 투수 유형도 있었다.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양한 투수들을 상대하면서 타격 경험을 쌓은

김규성, 호주리그서 찾은 자신감으로 연습경기 3점 홈런 홍종표, 군 복무 마치고 복귀 ... 빠른 스피드로 시즌 준비

김규성은 캠프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그리고 지난 1일 삼성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는 3점포를 날리는 등 결과도 만들었다.

호주리그 경험은 수비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 김규성은 "호주 선수들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타구도 다르고 힘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것 같다"며 "질풍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캠프에서 더 준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플레이를 선보이겠다. 제일 약한 방망이에 더 신경 쓰면서 올 시즌에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호주리그를 새로운 발판 삼은 김규성, 홍종표는 '군대'가 변항점이 됐다.

홍종표는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 가을 팀에 복귀했다. 군대에서도 야구를 이어갔지만, 야구에 대한 간절함은 더 커졌다. 성적 부담을 덜고

차분하게 내공을 쌓으면서 자신감도 커졌다.

신인이었던 2020년 이후 3년 만의 해외 캠프에 나선 홍종표는 "비시즌에도 강도 높게 준비해서 캠프를 잘 소화하고 있다. 군대에서도 야구를 했으니까 어렵거나 벅찬 것은 없고, 빨리 적응해서 재미있게 하고 있다"며 "3년 전에는 신인이라서 잘 모르기도 했는데 이제 프로 세계를 아나가 쉽게 적응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스스로 잘 준비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비 잘하고, 주루플레이에서 한 베이스라도 더 가면서 득점하는 게 내 스타일인데 타격에서는 큰 스윙보다는 짧게 쳐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야 할 것 같다. 몸을 잘 만들어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군 전역 후 빨리 그라운드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홍종표는 빠른 속도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홍종표에게는 이미 시즌이 시작됐



김규성



홍종표

다. 홍종표는 "전체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확실한 자리가 없으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것보다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그나마 눈에 띄지 않을까 한다. 처

음부터 잘 해야 한다"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호주리그와 군대라는 터닝포인트를 통해 더 단단해진 김규성과 홍종표가 KIA 내야 구성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왼쪽)이 1일(현지시간) 영국 셰필드 브래몰 레인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16강전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2부)의 조지 발록과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선발 복귀에도... 토트넘, FA컵 8강 좌절

2부리그 셰필드에 0-1 패배

손흥민(31)이 선발로 복귀해 플라임을 소화했으나 소속팀 토트넘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전에서 2부리그 팀에 달미를 잡혀 탈락했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셰필드의 브래몰 레인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2부)와의 2022-2023 FA컵 5라운드(16강전)에 선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교체 출전한 손흥민은 이

날은 선발로 복귀, 히사롤리송-루카스 모라와 공격 선봉에 섰으나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0일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까지 이번 시즌 공식전 전체 9골(리그 5골)을 넣고 있다.

FA컵에선 1월 말 2부 팀인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4라운드 때 멀티 골로 3-0 완승에 앞장선 데 이어 2경기 연속 골을 노렸으나 불발했다.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의 침묵 속에 토트넘은 후반 34분 셰필드의 일리만 은디야에게 내준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0-1로 졌다. 토트넘은 FA컵에서 통산 8차례 우승을 기록했으나 최근 우승이 1990-1991시즌으로 30년이 넘었다.

각종 대회를 통틀어서도 2007-2008시즌 리그컵 이후 15년째 무관에 그치고 있다.

FA컵에서 토트넘은 4시즌 연속 5라운드에서 고배를 들었다. 반면 현재 잉글랜드 2부리그인 EFL 챔피언십에서 2위를 달리는 팀으로, FA컵 4회 우승을 보유한 셰필드는 2020-2021시즌 이후 2년 만에 8강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4부리그 그림즈비, 사우샘프턴 격파 FA컵 8강

잉글랜드 축구 4부리그 팀인 그림즈비 타운이 프리미어리그(EPL) 팀인 사우샘프턴을 격파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림즈비는 2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FA컵 5라운드(16강전)에서 개런 홀러한의 페널티킥 멀티 골을 앞세워 사우샘프턴을 2-1로 따돌렸다.

그림즈비는 1939년 이후 무려 84년 만에 FA컵 8강에 진출했다.

아울러 4부리그가 시작된 1958년 이후 FA컵에서 4부 이하 팀으로는 역대 6번째로 8강에 오르는

역사도 남겼다.

2017년 5부 팀이던 링컨시티가 번리를 꺾고 8강에 올라 아스널에 패해 탈락한 것이 최근 4부 이하 팀의 8강 진출 사례였다.

잉글랜드 4부에 해당하는 'EFL 리그 2'에서 이번 시즌 중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림즈비는 이번 FA컵 1라운드에서 3부리그 팀인 플리머스 아가일을 5-1로 몰라친 것을 시작으로 5경기 모두 상위 리그에 속한 팀을 제압했다.

영국 스포츠는 "FA컵 역사상 단일 대회에서 5개의 상위 리그 클럽을 꺾은 건 그림즈비가 최초"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그림즈비는 16강전에서 스토크시티를 1-0으로 제압한 1부의 브라이턴과 다음 달 19일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날 원정 팬 4천여 명의 응원을 받은 그림즈비는 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선제골로 반란의 서막을 알렸다. 사우샘프턴 센터백 리앙우의 핸드볼 파울로 선언된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홀러한의 오른발 슈팅이 그림즈비에 리드를 안겼다.

이어 후반전 시작 5분 만에 그림즈비는 다시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추가했다.

공격수 다닐로 오시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 두에 찰레타차르와의 경합으로 파울을 얻어내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또 한 번 키커로 나선 홀러한의 오른발 슈팅이 골 득점을 흔들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LIV 닳아가는 PGA

내년부터 선수 70~80명 출전 컷 없는 대회 8개 예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내년부터 선수 70~80명만 출전해 컷 없는 대회 8개를 치를 예정이라고 2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런 방침은 이날 PGA 투어 정책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정책위원회에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등 선수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 선수들도 찬성한 셈이다.

컷이 없어 출전 선수가 모두 상금을 받는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아 PGA 투어에 대항하는 LIV 골프와 '달은팔' 방식이다.

LIV 골프는 48명의 선수가 컷 없이 54홀 경기를 치러 순위를 가린다.

다만 PGA투어의 '노컷 대회'는 LIV 골프와 달리 72홀로 치른다. 54홀 대회는 세계랭킹 포인트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컷 대회' 확대는 최정상급 선수들에게 더 많은 상금이 돌아가도록 메이저대회를 포함해 17개 특급 대회를 지정해 총상금을 최하 2000만 달러로 올린 조치에 이은 2탄 격이다.

막대한 상금을 큰 노력 없이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LIV 골프에 선수들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컷 없는 대회 출전 선수 자격은 전년 페덱스컵 랭킹 50위, 세계랭킹 30위, 그리고 대회 즈음 페덱

스컵 랭킹 10위, 투어 대회 우승자 등으로 제한해 정상급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컷 없는 대회가 8개나 생긴다면 정상급 선수들이 LIV 골프로 건너갈 매력도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PGA투어에는 지금도 샌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더CJ컵, 조조 챔피언십 일부 컷 없는 대회를 치르고 있다.

대신 PGA투어는 메이저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총상금 2천만 달러짜리 특급대회에 의무 출전 규정을 없앴 방침이다.

정상급 선수들은 환영했다. PGA 투어 정책위원회 위원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컷 없는 대회에는 누구나 자격을 갖추면 출전할 수 있다. 공정하다"면서 "(부진하던 선수도) 2, 3개 대회에서 잘 치면 컷 없는 대회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코티 셰플러, 맥스 호마(이상 미국)도 ESPN에 "컷 없는 대회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LIV 골프에서 뛰는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는 소셜미디어에 "작년에는 컷 있는 72홀 대회만 진짜 골프 대회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